

'미식체험 여행 진안' 홍보

군,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 참가... 더덕불고기 등 먹거리·관광자원 소개

진안군은 지난 2~3일 양일간 군산 청암산으로 캠핑장과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된 2021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해 군 대표 음식을 주제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미식체험 여행 콘텐츠를 홍보에 나섰다.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은 전라북도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을 주제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해외 홍보 마케팅 행사로, 행사에는 20개국 70여명의 외국인 인플루언서들과 시군 관광부서 직원 3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각 시군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만든 음식과 연계된 관광자원을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소개하고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직접 시·군 대표 음식을 요리해 경연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청정 진안고원을 대표하는 홍삼과 더덕, 흑돼지를 재료로 홍삼소스가 들어간 더덕불고기를 선보여 참가한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음식과 연계해 홍삼spa, 홍삼축제, 산약초차, 산물음식 등 진안의 관광 자원과 먹거리 홍보도 진행했다.

한편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전북 미식여행 영상은 외국인 인플루언서들

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되어 국내외로 송출될 예정이며 여행사 여행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전라북도 전담 여행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여행사에 홍보하여 '단체관광상품(인산 방한관광)'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정부의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합의문 서명 등 국제관광 시장 재개가 가시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협력해 전북도의 대표 여행 상품인 미식여행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희옥 무주군 부군수 취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관광의 도시, 힐링의 도시로 불리는 무주에서 근무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일 자 무주군이 부임한 김희옥 무주군 부군수(56)의 취임 소감이다.

김 부군수는 "관광도시 및 농촌건설, 돌아오는 농촌의 구원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무주 미래를 담보할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러한 역점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주다움을 완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민들과 다거리는 밀집·현장행정을 펼쳐 '무주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부군수는 "농촌도시가 함께 겪고 있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관광·도시재생 등 모든 분야가 고르게 잘 추진돼야 한다"면서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김희옥 부군수는 남원출신으로 남원성원고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1년 남원시 금동사무소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 농촌진흥청 남원시 문화관광과장, 전북도 관광총괄과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온화한 성품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는 공직사회의 평가를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희성 장수군 부군수 취임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장수군 제29대 부군수에 이희성(57) 전 전북도 정보화총괄 과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

이희성 부군수는 전북 완주출신으로 1989년 공직생활에 입문해, 사회재난과장, 국회사무처 과장 업무, 정보화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희성 부군수는 "부녀자를 비롯한 아이와 어르신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방범 시설물을 강화해 범죄 없는 안전 도시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농산물 절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방범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소통과 행보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장영수 군수님과 함께 '장수548' 정책 실현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성 부군수는 "부녀자를 비롯한 아이와 어르신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방범 시설물을 강화해 범죄 없는 안전 도시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농산물 절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방범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소통과 행보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장영수 군수님과 함께 '장수548' 정책 실현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온라인 비대면 유통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식품가공업 및 유통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유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가공제품의 온라인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제품 상세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판매용 패키지 제작 지원 등으로 장수군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쇼핑몰·스토어팜 등 온라인판매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해 온라인 유통망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초기 온라인 판매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10개 내외의 업체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13일까지(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식품가공업 및 유통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유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가공제품의 온라인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제품 상세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판매용 패키지 제작 지원 등으로 장수군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인터넷쇼핑몰·스토어팜 등 온라인판매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해 온라인 유통망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초기 온라인 판매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10개 내외의 업체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13일까지(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영토주권 침해"

무주군의회, '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영유권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일본영토로 표기된 독도를 즉각 삭제 하라고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도발규탄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는 그 어떤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며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거짓이 자국영토라고 표기할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는 코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탈 시도를 보며 이웃나라를 침략해 반인륜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일삼았던 일본의 그릇된 속성이 아직 만연해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독도영유권 침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라고 권고했지만 도쿄올림픽에서는 오히려 표기를 방조하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군의회는 일본과 IOC가 스포츠정신을 선보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할 올림픽을 영토사회의 수단으로 악

용하고 정치적 쟁점 원칙까지 스스로 어겨가며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하며 인류에 부끄럽지 않을 올림픽이 되도록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를 침탈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맞설 것을 천명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유승열 의원은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거짓이 자기 영토라고 표기해 인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쳤다. 올림픽을 구실삼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에 무주군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개탄하고 있어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추진

진안군은 지난 2일 농촌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인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멀칭비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소축 등으로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햇빛을 받으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 작물 재배후 후 작물 재배를 위해 폐비닐을 수거할 필요가 없



진안군은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 봄·가을 농번기에 농작업 시간 및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농작업의 편리성과 농촌의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멀칭비닐보다 비싼 가격으로 농가에서 사용이 쉽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전북도와 함께 밭작물,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에만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양파류 재배면적 361ha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전여 예산 10백만원을 활용해 가을배추, 무 등 재배농가에 멀칭 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사무소 산입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